

금요 양성, 2024년 9월 13일

성프란시스의 오상 9월 17일 (800주년)

성프란시스가 그리스도의 오상을 받으신 (The Stigmata) 800주년을 강조하기 위해 회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자주 대두되는 질문 연재를 섣다.

- + 성 프란시스는 1224년 9월 십자가 현양 축일 즈음- 돌아가시기 2년전 -에 오상을 받으셨다.
- + 성인은 라 베르나 산에서 마이클 대천사 축일을 준비하느라 기도를 하고 있었다. 레오 형제가 가까이에 있었다.
- + 기도하는 동안 하느님께 두 가지를 요청했다. 하나는 십자가위에서 그리스도가 인내했던 그 고통을 체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고통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 + 그러자 잠시후에 프란시스는 날개가 여섯개 달린 세라핌 천사를 보았다. (세라핌은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최고품계의 천사들이다.) 날개사이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 환시가 사라졌을 때, 프란시스는 그리스도의 상처의 표시가 나타났다. (성 프란시스의 세라핌과 성부를 찬미하는 그의 열정과의 만남은 프란치스칸 수도회를 세라핌적 수도회라고 칭하고 성 프란시스를 세라핌적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근간이다)
- + 우리는 9월 17일에 오상 축일을 지낸다
- + 성 프란시스는 기록된 크리스천 역사상 오상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다.

오상: 프란치스칸으로서의 영적인 삶의 영감

우리의 삶안에서의 표시들

- 표시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우리의 삶안에서 무엇이 우리를 표시하는가?
- 가톨릭인으로서 어떻게 표시되는가? 프란치스칸으로서 어떻게 표시되는가?
- 우리를 표시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삶에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가?

이제, 십자가를 응시하라

- 그리스도의 상처를 응시할 때 무엇이 마음에 떠오르는가?
-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진하여 돌아가심을 묵상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무엇을 쾌히 하려고 하는가?
-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으려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꺼히 사용하려 하는가?

아시시의 성녀 글라라의 다섯 상처에 드리는 기도

<https://digitalcollections.franciscantradition.org/document/bx4700-c6a2-2005->

d035/the_prayer_to_the_five_wounds_of_the_lord/undated?searchOption=transcriptions&term=The%20prayer%20to%20the%20five%20wounds%20of%20the%20lord&searchType=exact_phrase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도 (1983년 라 베르나 산을 방문했을 때)

오, 프란시스코 성인, 라 베르나에서 오상을 받으신이여, 세상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모상이신, 당신을
갈망합니다.

세상은 하느님과 이웃에게 열려있는 당신의 마음, 헐벗고 상처받은 당신의 발, 탄원하기 위해 쳐든 꿰뚫린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약하지만 복음의 힘으로 강해진 당신의 목소리를 그리워합니다.

성인이시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죄의 사악함을 인식하고 참회로 그 죄를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이 오늘날 사회의 구조적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의식안에 국가와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평화의 긴박함을 일깨워주소서.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수많은 죽음의 문화의 덫을 견딜 수 있는 삶의 선도를 일깨워 주소서.

온갖 종류의 악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오 프란시스, 용서할 수 있는 기쁨을 가르쳐주소서.

고통과 기아와 전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을 다시 열어주소서. 아멘,